

전통의 뿌리서 피어난 오늘의 노래



조선 예인의 숨결을 현대 감성으로 되살린 음반 이 발매돼 눈길을 끈다.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더한 창작활동을 이어온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RootMerge)가 지난 5일 두 번째 '법고창신' 시리즈인 미니앨범 '법고창신 2: 예인의 노래'를 공개했다. 이번 앨범은 조선 후기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지였던 나주 신청(新廳)과 예술인 조직이었던 재인청(才人廳)의 예술정신을 조명한다. 단순한 전통의 재현이 아닌 '계승과 재창조'를 지향하며, 예인들의 삶과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낸 창작곡악 미니앨범이다.

수록곡은 총 3곡으로 창작곡 '나의 노래'와 연주곡 '리프레쉬(Refresh)' 그리고 '인당수'가 담겼다. 각각 다른 결을 지닌 세 곡은 모두 '음악으로 삶을 견뎌낸 사람들'의 깊은 정서를 품고 있다. 타이틀곡 격인 '나의 노래'는 작사·작곡가 윤현명의 창작곡으로, 국악인 김산옥이 피쳐링으로 참여했다. '그날의 음악은 멀어졌지만 / 그 울림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살아 숨 쉰다'는 곡 소개처럼, 옛 신청의 고요와 명인들의 정서를 오늘의 목소리로 새롭게 노래한다.

루트머지 '법고창신 2: 예인의 노래' 미니앨범 발매



최근 나주 신청문화관에서 열린 루트머지 '풍류·신청의 예인들' 공연 모습.

연주곡 '리프레쉬'는 박한걸 작곡으로, 전통 가야금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퓨전국악곡이다. 고요하게 번지는 가야금 선율은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잠시 멈춰 선 시간 속 위로의 리듬을 전한다. 이번 앨범에는 루트머지의 주요 멤버인 홍운진(가야금), 김현화(건반, 작사·작곡), 김종일(장구), 윤영훈(드럼), 정수연(소리), 윤해림(보컬)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 객원 아티스트인 루트프렌즈 윤현명(작사·작곡), 장우균(작곡), 김현경(해금), 윤민석(피리), 전사무엘(베이스) 등이 협업해 음악적 완성도를 더했다. 루트머지는 2008년 결성된 이후 한국 전통 산조의 자유로운 형식을 기반으로 퓨전국악과 월드뮤직을 꾸준히 선보여

온 8인조 창작그룹이다. '뿌리(root)'와 '융합(merge)'의 결합을 뜻하는 팀명처럼 이들은 공연, 음반, 교육, 영상 등 장르를 넘나들며 법고창신(法古創新)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예인의 노래' 앨범 역시 루트머지의 이러한 활동 방향과 맞닿아 있다.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시대의 감각을 잇는 창작을 이어온 이들은 나주 신청에서 이어져온 음악적 유산과 예술가의 정신을 오늘의 감성으로 풀어냈다. 한편 루트머지의 '법고창신' 두 번째 시리즈인 이번 앨범은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공연 및 후속 프로젝트는 루트머지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보조금 집행 실무부터 기관 브랜딩 전략까지

오늘 광주문화재단 역량강화 워크숍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8일 오후 2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대강당에서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2025 예술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 및 실무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이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주제인 '보조금 정산'과 '브랜딩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 실질적인 고민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강의를 한미회계법인 김소영 회계사의 '나도 이제 보조금 마스터'를 주제로, 보조금 집행부터 정산까지의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짚어본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회계 절차를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문화예술교육 단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두 번째 강의는 '어글리밤' 전혜원 대표가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브랜딩으로 말하다'로, 단체의 정체성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브랜딩 전략을 소개한다.

노회용 재단대표이사는 "보조금 정산이 막막하거나 우리 단체의 색깔을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하는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예술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단체뿐 아니라 관련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별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제24강〉 3. 수뢰둔(水雷屯) 上

주역 상경의 세 번째 괘는 수뢰둔(水雷屯)이다. 둔을 '준'이라고도 읽는다.

이 괘는 물 밑에 용이 빠져 있어 아직 시절을 못 만나 잠용 물용(潛龍勿用)이다. 즉 용이 물속에 있어 날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

수뢰둔(水雷屯)	屯, 元亨利貞, 勿用有攸往 利建侯	卦象
	乘馬班如 泣血漣如 屯其膏, 小貞吉 大貞凶	龍居淺水之課
	乘馬班如 求婚媾 往吉 无不利	龍動水中之象
	初九勿用 懼入于林中 君子幾不知凶 往吝	萬物始生之象
	屯如雷如 乘馬班如 匪寇 婚媾 女子貞不字 十年乃字	草昧不寧之意
십년토년(十年屯難), 천지시교난생(天地始交難生)		

육십사괘 중에서 4대 난괘, 즉 둔(屯), 감(坎), 곤(艮), 곤(9) 9), 곤(4) 4)괘 중의 하나다. 둔(屯)이라는 글자는 씨앗이 나오려는 모양이다. 땅 위로 씨앗이 발아돼 솟아 나오는 모습이다. 하괘 즉, 땅 밑에는 뿌리가 구부러져 있는 모양으로 봄이 다가오면 자라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모양이고, 땅 위에는 상괘 감수(坎)가 얼어있고 응결돼 있어 나오기 어려운 형상이다. 땅 속의 발레가 움직이면서 위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기도 하다.

수뢰둔에서 수(水)는 겨울이고 뇌(雷)는 봄이다. 용뢰(龍雷)가 물 속에서 움직여 나와야 하는데 아직 얼음이 얼어 있어 못나오고 그래서 둔괘는 둔난(屯難)의 어려운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둔괘는 건과 곤, 하늘과 땅이 만나 자식을 잉태한 모습으로 상괘 양수 속에 하괘 음양이 자라고 있는 상이다.

서괘전에서는 '천지가 생기던 후엔 만물이 생기고 천지간에 가득찬 것이 만물이 깨달아 둔으로 받는다'고 해 '유천지후 만물생인 영천지간자자유만물 고 수지이둔'(有天地然後 萬物生焉 盈天地之間者唯萬物 故 受之以屯)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둔괘(☳☵)는 상(象)이다. 구름과 우레가 된다. 군자는 일을 경중한다(雲雷屯 君子以 經綏). 둔괘는 감공이세로 괘는 유월에 속한다(坎宮二世 卦屬六月). 남갑은 庚子 庚寅 庚辰 庚戌 庚子이다. 유월 및 남갑에 생한 자는 공명과 부귀인이 된다(如生於六月及納甲者 功名富貴人也). 또 이월부터 팔월에 이르러서는 그 시를 득한 자이니 북이 두렵고(又二月至八月 得其時者 爲福壽). 나머지 달에 이를 득한 즉 무수 일을 하지 말라(餘月得此 則勿用有攸往))는 어려움의 시작으로 시작할 때의 어려움, 창조에 있어서 둔난의 시기이다. 상전(象傳)에서도 이를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 교류를 시작할 때의 어려움이라 해 '천지시교난생(天地始交難生)이라 한다.

상·하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감수는 이전투구(泥田鬪狗)를 하는 개인데 감수가 상괘에 있으면 이전투구를 끝내고 힘없이 늘어져 쉬고 있는 형상이고, 하괘 진괘는 실력있고 추진력이 강한 양괘(陽卦)로 지각변동(地殼變動)을 일으키면서 이 괘 전체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를 상괘가 힘이 없어 받쳐주지 못해 좌절하고 만다. 따라서 아직은 움직이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둔괘'라 한 것이다.

둔괘의 상은 용이 물속에 거하면서 움직이는 용거천수지과(龍居淺水之課)이고 용동수중지상(龍動水中之象)이며, 천지가 만나 만물이 생기기 시작되는 만물시생지상(萬物始生之象)이고 땅 속의 풀, 벌레가 지상으로 나오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편안하지 못한 초매불녕지의(草昧不寧之意)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수뢰둔괘(屯卦)의 괘사에서 '둔, 원형이 정 물용유유왕 이견후(屯, 元亨利貞 勿用有攸往 利建侯)라고 한다. 즉 '둔괘는 크게 흥통하나 정도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제후를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시기이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너무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말고 직접 나서지 말며 대리인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천하를 통일해도 처음에는 천자(天子)가 모든 땅을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 지역의 맹주인 제후(帝侯)들을 세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고로 둔난(屯難)의 때에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하는 일은 우수한 사람을 발탁해 제후를 세워 다스리고 자신도 신고간난(辛苦艱難)을 감수해 나아가야 한다.

둔괘의 시기에는 천지가 처음 생겨났을 때와 같은 상황으로 아직은 어둡고 날이 밝지 않아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 사업, 취업, 시험, 전업, 혼인 등은 멈추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또한 장님이 중남 밑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분쟁이 있고 집안 소동(騷動)이 일어 나기 쉽다.

병은 초기로서 내괘 진괘가 '흔들린다'는 상에서 각기 병, 외괘 감수를 보고 가슴병, 객혈, 구토, 변비, 월경불순이라 하고 호괘(互卦)의 간산을 보고 식체(食滯)라고도 보며 잉태는 출산의 고민(始交難生)이 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가출인, 분실물(分失物) 등은 돌아오지 않고 찾기

“둔, 원형이정, 물용유유왕 이견후”

힘들다. 날씨는 둔의 혼돈이라는 의미에서 구름이 짙은 흐린 날씨로 변동이 심하다.

수뢰둔괘는 역위생괘(易位生卦)를 쓰면 안된다.

수뢰둔(역위생괘)	
수뢰둔	뇌수해

수뢰둔을 역위하면, 즉 본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괘를 상괘의 위로 역위생괘하면 뇌수해(雷水解)가 돼 문제가 해결 되는 상이다. 그러나 둔괘는 혼미(昏迷)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상대방이 오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지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불리하다.

수뢰둔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개인가? 다음에서 괘의 래왕(來往)을 살펴보면 중뢰진(重雷震)에서 수뢰둔이 되고 산뢰이(山雷頤)로 행한다.

운이생괘(運移生卦)나 래왕생괘는 양효가 음효를 넘어 또는 음효가 양효를 넘어 한 개의 효씩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효의 이동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양효가 양효를 넘거나 음효가 음효를 넘어나갈 수는 없는 원칙이 있다.

수뢰둔(래왕생괘)				
지택임	지화명이	중뢰진	수뢰둔	산뢰이

수뢰둔은 중뢰진에서 뜻밖에도 놀란 일을 당하고 구사(九四)가 오호로 움직여 수뢰둔이 됐으며 둔의 고통, 고뇌에서 나아가 구오(九五)가 상효로 이동해 산뢰이(山雷頤)가 돼 말다툼, 서로간의 대치(對峙)의 상이 된다. 그렇다면 중뢰진은 지화명이(地火明夷)에서 왔고, 명이는 지택임(地澤臨)에서 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운이생괘를 활용한 '실점'에서, 중국 춘추전국시대 <<각주=춘추전국시대, BC8세기에서 BC3세기에 이르는 중국 고대의 변혁시대를 말한다. 즉 주(周)나라는 BC. 771년에 수도를 서안(西安)에서 웨양(洛陽)으로 천도하는데 천도 이전의 시대를 서주시대, 이후를 동주시대라고 한다. 동주시대는 춘추(春秋)시대와 전국(戰國)시대로 나뉜다. 춘추시대는 주왕조가 도읍을 옮긴 때로부터 진나라(秦, 周 무왕의 둘째아들 周赧王)가 건립 BC 1042~BC 376)의 대부(大夫)인 한(韓)·위(魏)·조(趙) 삼씨가 진나라를 분할해 제후로 독립할 때까지의 시대를 말한다(BC 403년). 전국시대는 그들이 후부터 진(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BC 221년까지다. 춘추(春秋)는 공자가 역

은 노(魯)나라의 역사서인 '춘추(春秋)'에서 유래했고, 전국(戰國)은 한(漢)나라 유항(劉向)이 쓴 '전국책(戰國策)'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진(晉)나라가 대군인 '초(楚)나라와 전쟁에서 승리 가능성 여부'를 입서해 '지뢰복 불변괘'(地雷復 不變卦)를 득괘했다.

운이생괘(래왕생괘)					
지뢰복	지수사	지산겸	뇌지예	수지비	산지박

가장 간단한 판단방법은 무동괘(無動卦)이니 하괘는 아군, 상괘는 적군으로 보고, 이 경우 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로 목극토(木剋土)하니 진나라가 이김을 알 수 있다.

이를 운이생괘법으로 접근해 보면, 복괘(復卦)는 11월 북방 자월(子月) 때로서 동지에는 일양(一陽)이 시작된다. 이때 두 나라의 위치가 황하의 북쪽에는 진나라, 남쪽에는 초나라가 있어서 북방에 있는 진나라가 남쪽에 있는 초나라를 공격하는 양상이 지뢰복괘의 초효 일양이 이양(지수사), 삼양(지산겸), 사양(뇌지예), 오양(수지비), 육양(산지박)으로 운이(運移)해가는 모습과 꼭 같다.

육양의 마지막에는 박괘(剝卦)의 머리에 해당하니 초왕의 머리를 쓰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초왕의 눈을 화살로 쏘아맞추어졌다.

복지서함(상괘 離火대일)	
지뢰복	화뢰서함

또한 득괘한 지뢰복괘의 하괘의 진뢰는 북의 진나라고 상괘의 곤토에는 남의 초나라에 해당하니 곤토의 자리에 남 이화(南離火)를 대입시키면 화뢰서함(火雷師)이 된다. 화뢰서함(火雷師)은 화뢰(火)가 지뢰(地)를 공격하는 상이 되니 초왕(楚王)의 눈을 화살로 쏘아 전쟁에서 이긴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역경(매주도,일오전)
- 기초이론부터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양성

